

연변병원, ‘전국여성문명모범집단’으로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의 진료안내및대기간호부문(导诊候诊护理单元) 간호사 일동

최근, 전국부녀연합회는 더욱 많은 여성들이 중국 현대화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우수한 여성 및 집단을 표창, 10명에게 ‘전국 3.8 홍기수모범’ 칭호, 596명에게 ‘전국 3.8 홍기수’ 칭호, 395개 단위에 ‘전국 3.8 홍기집단’ 칭호, 599개 단위에 ‘전국여성문명모범집단’ 칭호를 수여했다. 그중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의 진료안내및대기간호부문(导诊候诊护理单元)이 ‘전국여성문명모범집단’ 칭호를 수여받았다.

료해에 따르면 진료안내및대기간호부문이 ‘전국여성문명모범집단’ 칭호를 수여받은 것은 ‘길림성여성기여선진집단’과 ‘전국청년문명호’ 등 영예에 이어 또 한번의 중요한 영예를 받은 것으로서 초심을 지키고 적극적으로 진취하며 책임감 있게 헌신하는 ‘연의인(延医人)’의 정신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 간호부문의 환자의 진료 안내, 질서 유지, 세심한 배려 등 사업에서 아주 높은 전문성과 헌신 정신을 보여주어 환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현재 이 간호부문에 총 36명 간호사가 있다. 그중 35명은 여성이며 환자 분류와 진료 안내 및 건강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인원들은 성실하

게 일하고 간호사로서의 초심과 사명을 지키며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태도로 모든 환자들에게 세심한 의료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문명화된 직책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성과 열정으로 따뜻한 여성대오 구축

이 간호부문의 ‘사람을 근본으로 하는’ 봉사 리념을 바탕으로 ‘환자의 첫 질문에 책임지고 정확히 분류하며

효율적인 진료와 편안한 대기’의 간호 봉사를 제공한다. 하루 평균 4,000명 이상의 환자에 봉사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스템 사용이 어려운 로년층, 1인 진료, 청각 장애를 가진 로인들을 위해 1:1 지도, 동행 진료, 수화 통역 등 봉사를 제공하여 로년층 환자의 ‘진료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2023년 폐염이 류행되던 기간에 소아과의 하루 환자수는 1,200여명에 달했다. 아픈 아이들과 초조한 부모들을 마주해 그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환자



대중들에게 살뜰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 진료안내및대기간호부문 간호일군들

103개 총괄지역, 의료보험 실시간 정산 실시

11일 국가의료보장국에서 피로한 데 따르면 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103개 총괄지역에서 실시간 정산을 실시했다. 이는 총괄지역 총수의 26%를 차지한다. 그중 4만 3,700개의 지정 의료기구가 6만 7,600개의 지정 약방을 포함하며 실시간 정산 금액은 387억 3,100만원에 달한다.

장기적으로 ‘정산이 늦은’ 것은 의학 분야의 오랜 난제였다. 올해 1월 9일,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기본의료보험기금 실시간 정산 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여 각 성

에서 의료보험기금의 선불을 엄격히 리행하고 실시간 정산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료해에 따르면 79개 총괄지역은 월 정산 시간을 단축한 기초에서 정산 빈도를 한층 높였다. 레를 들어 안휘성은 당일 발생하는 입원 비용을 집계하여 다음날 60% 비율로 병원에 지급한다. 복건성 하문시는 ‘일일 보고, 일일 심사, 일일 지급’의 형식을 취하여 의료보험기금 정산 기한을 1개 근무일로 단축했다. 이외 일부 총괄지역은 의료기구를 분류하여

정산 기한을 결정하는 방법을 탐구했다. 하남성 안양은 의료기구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일, 3일, 7일로 나누어 정산한다.

동시에 61개 총괄지역은 실시간 정산 범위를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중대질병 보험기금 혹은 의료구조기금으로 확대했다.

이외, 기본의료보험기금 선불과 실시간 정산의 협동에 기능을 부여했다. 2월말까지 29개 성에서 기본의료보험기금 조달제도를 출범했고 17개 성에서 기본의료보험기금 484억원(그

들을 접수, 안내하여 ‘령’신소, ‘령’분쟁을 달성했다.

전문성과 효율성으로 최고의 안내 봉사 제공

이 간호부문의 ‘환자와 동행’하는 전방위적인 봉사 리념을 적극 추진하고 진료전과 진료후 전반에 간호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전에는 상담, 예약 등 봉사를 제공하고 위험 평가를 통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진료중에는 중점 과실과 동행하여 진료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진료후에는 환자의 입원 수속을 도와 개인 맞춤형 추적 관찰 작업을 완수한다. 연변병원에서 ‘건강 수호 변강행’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면서 이 간호부문의 간호사들은 외부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매일 수술 및 의료 상담수는 연인수로 800회에 달한다. 이외 외부 전문가를 지원하여 88건의 수술을 완료했는데 총 5,895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환자의 만족도는 98%에 달했다.

직업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

이 간호부문의 년중무휴로 365일 근무하며 문명창구 건설과 자원봉사 등 사업에도 전력하고 있다.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특별 시기에는 병원을 집으로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일터를 지켰다. 병원에서 ‘해민호’와 ‘한번 접수로 3일간 진료’ 등 새로운 봉사를 출범함에 따라 이 간호부문의 이미 연인수로 1만 1,000명 환자에게 봉사하고 약 11만 6,000원의 비용을 절약했다. 최근년간 이 간호부문의 공익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차례 고아원과 학교, 사회구역에 대한 무료건강검진과 건강지식 보급을 진행했다. 연일시 복산가두 단산사회구역과 건강협력관계를 건립, 봉사자는 연인수로 5,000명을 초과했다.

관련 책임자는 향후 연변병원 진료안내및대기간호부문의 계속해 량질의 간호 봉사를 제공하고 열정과 헌심을 담아 군중들의 생명건강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피로했다.



/ 오건기자

비만증진료센터, 길림대학제1병원서 정식 출범



최근, 길림대학제1병원 비만증진료센터가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료해에 따르면 비만증진료센터의 설립은 단순히 부문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표준화된 진료 경로를 통해 환자의 대사평가, 영양계획, 운동처방 및 수술결정 등의 전 과정을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끊임없는 탐색과 실천을 통해 길림대학제1병원 비만증진료센터는 학과 장벽을 성공적으로 타파하고 내분비대사, 영양, 운동의학, 대사수술, 호흡수면관리, 심리, 소아과, 생식의학, 종의학 등 다양한 학과의 진료팀을 구성하여 ‘정밀 평가—다 학과 간섭—전 생애주기 관리’의 표준화 진료 체계를 형성했다. / 오건기자



길림성 여러 병원, 알츠하이머병 치료 시행

우리 성의 길림대학제2병원, 길림대학중일련의병원, 사평시중심인민병원, 길림대학제1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는 경심림파—정맥접합수술(颈深淋巴—静脉吻合手术)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새로운 사로와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2024년 4월 25일, 길림대학제2병원 외과·림파부종 전문 책임자 류군(刘军) 교수팀과 항주시병원(杭州求是医院) 사경평(谢庆平) 교수팀은 공동으로 2명의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경심림파—정맥접합수술을 진행했다. 5월 30일, 류군은 신경내과와 핵의학과 등 여러 학과와 연합하여 독립적으로 59세의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이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후 환자의 증상이 효과적으로 완화되었다.

료해에 따르면 경심림파—정맥접합수술은 사경평교수가 2021년에 국제상에서 제일 먼저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응용하려고 시도한 혁신 수술이다. 이 수술은 미세 집삼 외과 기술을 통해 환자의 목 깊은 부위에 있는 림파관과 림접한 정맥을 연결하여 뇌 림파계의 순환기능(引流功能)을 개선한다.

◆무엇 때문에 림파계통의 순환기능을 개선해야 하는가?

류군교수는 “뇌 림파계는 대사 폐기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통로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뇌 림파 순환기능이 손상되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어있다. 이로 인해 신경세포 손상과 인지 기능 저하가 발생한다. 기존의 약물치료는 증상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질병의 발전을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번 수술은 림파 순환 경로를 재건하여 림파액을 체순환으로 빠르게 순환시킴으로써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제거를 촉진한다. 이는 질병의 병리학적 진행을 늦추고 환자의 인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길림대학제2병원 원장 왕해봉은 수외과·림파부종전문과와 신경외과, 신경내과, 핵의학과, 재활과, 종의과 등 알츠하이머병 MDT(다학과) 진료팀을 구성하여 ‘진단—수술—영양 및 중의—재활’의 특색종합진료 체계를 형성하여 환자의 수술후 회복률을 뚜렷이 제고시켰다.

길림대학제2병원외에도 길림대학중일련의병원에서도 이 신기술의 응용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병원의 혈관외과 선두주자 두건시(杜建时) 교수팀은 신경내과, 초음파과 등 다학과의 정에 인력을 연합하여 2024년 8월 독립적으로 경심림파—정맥접합수술을 시행하여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했다. 지금까지 이 팀은 18건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는데 모두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

올해 1월, 사평시중심인민병원 신경외과 주임 리효동(李晓东) 교수팀은 할빈의과대학부속제2병원 곡면(郭颀) 교수와 연합하여 2건의 경심림파—정맥접합수술을 전개했다. 3월 2일, 길림대학제1병원 신경전문병원(吉大一院神经专科医院)—신경외과진료플랫폼 신경중양외과진료센터 부주임 홍신우 팀은 관련 부문의 전폭적인 협조하에 70세 중증 환자에게 성공적으로 수술을 실시했다. 홍신우교수는 “현재 림상 수지에 따르면 이 수술은 안전성이 높고 치료 비용이 낮다. 수술후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고 가족의 간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류군교수는 “해당 수술은 현재 여전히 초보적인 탐색 단계에 있는바 적응증(适应症)에 대한 엄격한 파악과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의 기술적 돌파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했으며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데 새로운 사고 방향을 제공해주었다.”고 덧붙였다.

/ 길림일보



최근 연변대학부속병원(이하 ‘연변병원’)에서는 ‘전국 귀 사령의 날’ 자선진료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건강한 청취, 장애 없는 소통’을 주제로 했다. 이비인후두경부외과의 10여명 의료진으로 구성된 전문진료팀은 연변병원 양광대청 1층 로비에 전문진료설비를 설치하고 군중들에게 무료로 진료 봉사를 제공하고 현장을 찾은 광범한 시민들에게 건강상담도 해주었다. / 연변대학부속병원

딥시크 의사 ‘진료’ 믿을 만할가?

딥시크가 의료 영역에서 갈수록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딥시크가 주임의사와 같은 진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병원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이러한 의문이 의사와 환자의 대화에 오르내리고 있다.

호남성인민병원 당위 위원이며 부원장인 성위는 지금 많은 환자들이 딥시크를 가지고 병 보이며 오는데 “딥시크가 어떤 진단을 내렸으면 어떤 약을 써야 하지 않겠어요? 의사선생님, 약을 때주십시오.”라는 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것이 오늘날 ‘의사와 환자의 새로운 생대’로 되었다고 부연하면서 딥시크의 진단 결과는 그다지 정확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

공지능은 하나의 참고 진단을 줄 뿐이고 심지어는 ‘AI 환각’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에 최종 진단은 그래도 의사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빅모델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이른바 ‘처방’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큼의 신뢰도가 있을까? 똑같이 딥시크를 사용할 경우 의사와 환자가 보는 ‘처방’이 같을까? 성위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답을 주었다. AI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대량의 고품질 훈련 데이터, 계산법의 최적화 정도 및 림상 검증에 의존한다. 복잡한 병례를 처리하고 환자별 차이에 결부해 진단하는 등 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전면성 면에서 인공지능이 내놓는 건의가 인류를 통가하지만 인공지능은 아직 특정 질병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의 가장 큰 난점이 초기 훈련의 내용이 정확함을 보장해야 하면서 또 전문인원의 조작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게다가 환자와 의사가 쓰는 AI 모델은 다르다. 환자가 사용하는 모델 데이터 저장고가 사용한 훈련자료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다. 간단한 진단문제에만 답할 수 있다.” 성위의 말이다.

호남성흥부병원 부원장 하정은 의학은 단순한 ‘기술일’이나 섬뜩한 기계와 기계의 대면이 아닌, 료리도

덕과 인문배려로 차남친다고 말했다. 의사의 경험과 직감 그리고 환자의 개체 차이, 심지어 우려와 처지에 대한 고려까지 치료 결핵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의학원에서 같은 교육을 받았다 해도 졸업후 부동한 병원에 들어가고 부동한 환자들을 만나면서 부동한 특기를 가진 의사로 성장한다. 딥시크는 동일한 데이터 훈련을 기반으로 얻어낸 지식창고로 처리 방식은 ‘한명의 의사’에 맞먹는다. 하지만 실제로 병을 보일 때는 부동한 의사로부터 부동한 견해를 얻어야 한다.

/ 인민넷